



수 신	창원산업진흥원 사용자, 인사위원
발 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 락 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1월 4일 20시
제 목	우리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제대로 된 경영지원실장을 원한다

우리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제대로 된 경영지원실장을 원한다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 5월 창립한 이래, 지난 9년 동안 창원소재 기업에 대한 산업생태계 체질개선과 미래전략산업을 이끌고, 지역기업 및 산업 육성 발전전략과 정책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 구성원들은 사측과 상급기관으로부터 도를 넘는 언어폭력 등 부당하고 억압적인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결국, 참다못한 구성원들은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리게 되었다.

특히, 사측의 핵심 보직자인 역대 경영지원실장들은 대부분 구설에 오르거나 비위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경영지원실장의 역할은 창원시와 진흥원, 원장과 구성원 사이의 가교로서 상통하달에 힘써야 함에도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 강춘명 경영지원실장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기본적인 업무 처리는 고사하고 부당 지시, 불통, 언어폭력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등 가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재단 정관 및 규정 등을 개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들의 의사 확인, 동의징구 절차는 아예 없었다. 3개월 후 직원들이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감사 업무를 하는 윤리경영팀을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경영지원실 산하에 두고 직원 사찰을 하도록 하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불투명한 간접비 사용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등 업무 공정성의 의심도 사고 있다. 업무능력과 공정 등 경영지원 실장의 자질과 윤리의식은 아예 증발하고 없는 것 같다.

본인을 거스르는 직원에게 “불순분자”, “빨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낙인찍기와 여직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라는 상상하기 힘든 발언을 하는 등 공공기관 간부로서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런 언어폭력을 회의나 공개석상에서 상습적으로 자행했던 것이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처리에서도 경영지원실장의 무개념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공간분리 등 초동 조치는커녕, 2차 가해, 피해가 그대로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상황이다.

노사관계 또한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다. 노동조합 창립 이후 탈퇴를 종용하거나, 잘못된 노사 자문 등을 내세우며 노사관계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노사관계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창원시 출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에 기반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경영 자세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우리 모두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신임 원장 부임 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기관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이끌어 갈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되길 기대하였다. 현 강춘명 실장의 연임은 창원산업진흥원의 미래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창원시도 이점 분명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창원산업진흥원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연임 결정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강춘명 실장과 같은 인사가 창원산업진흥원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창원산업진흥원을 내 삶의 일부로 느끼며 땀흘려왔다. 그런 우리의 직장이 더 이상 강춘명 실장과 같은 인사가 벌이는 광란의 장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그동안 묵묵히 감내하고 열심히 땀흘려온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의 진심을 믿고 창원산업진흥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인사를 선임하시길 바란다.

2024년 11월 4일

